항상 고도로 주님을 사모하라

1단계 완성의 사모하는 층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단계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은 일초일초 내 주님을 바라보아야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주님을 바라보고 일초일초 고도로 사모하는 가운데 계속된 사모함이, 그 사모하는 층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기고 난다 해도 한꺼번에 2단계 사모하는 층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가운데 1단계를 거쳐서 2단계의 사모하는 층에 들어가며, 3단계의 사모하는 층에 들어가야 그 사모하는 마음이 끊어질 수가 없는 단계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계속된 그 사모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 그 사모하는 생각이 끊어지려야 끊어질 수 없는 그 층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3단계에 접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도로 사모하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거니와 그 사모하는 것을 해 보지도 않는고로 1단계의 사모하는 층도 들어가지 못한고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금새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고, 마귀한데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가운데서 1단계의 사모하는 층을 지나면 2단계의 사모하는 층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말로는 형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단계 완성의 사모하는 층은 바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2단계에 접어들면 시간 시간 눈물이 계속해서 쏟아지면서 눈물이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모하는고로 꿈 중에도 사모하는 것입니다. 꿈 중에도 사모하는 층에 들어가는 것이 2단계에 접어들어가는 것이요, 그 사모하는 층이 어제보다 오늘이 부족하면 여지없이 자유율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층이 고도로 올라가게 되어 적어도 1년 이상 사모하고 사모하여 이제 비로소 2단계, 3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고 소유하게 하는 방법은 고도로 사모하는 것밖에는 없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고로,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고 나를 소유하게 하는 그 방법은 고도로 사모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조금 사모하다가 어떤 사람과 부딪히면 그새 사모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다른 일을 생각하게 되는 정도는 영적으로 배밀이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앉아 있는 단계도 못되고 배밀이하는 영의 단계인고로 그는 아무리 앉혀봐도 쓰러지고 앉혀놔도 또 쓰러지는 뭉크러진 심령상태인고로 그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층이 고도로 올라가서 3단계 정도 올라가면 말을 하면서도 사모해지고, 일을 하면서도 사모해지고, 무슨 일을 해도, 설교를 하면서도 사모해지는 그 층에 들어와 있는고로 그 누가 그 마음을 뺏어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긴자라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바 된 자가 이긴자이지, 이긴자가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힌 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들락날락하는 정도면 이긴자가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고도로 사모하고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감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와서 쥐어박아도 섭섭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비결, 마귀가 틈을 타려야 탈 수 없는 비결은 고도로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가운데 3단계에서 계속해서 차고 올라가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해본 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이것을 알 자가 없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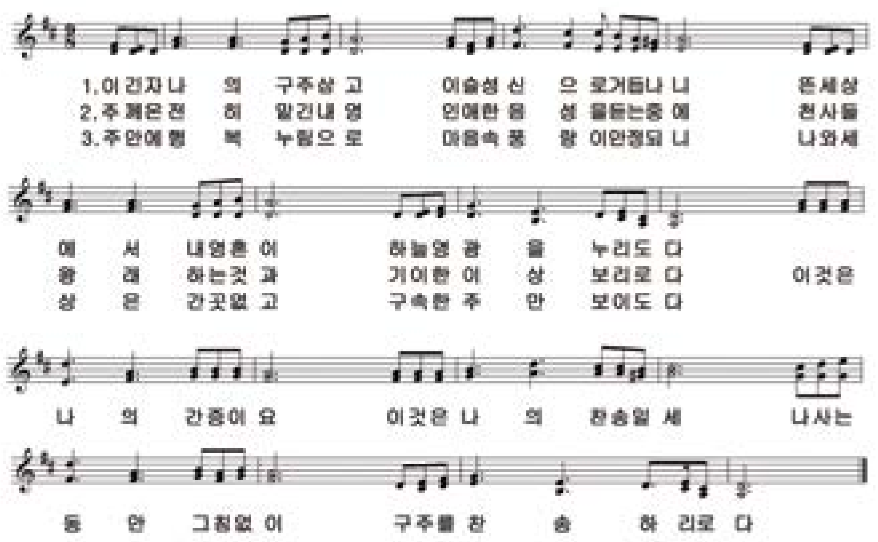
여러분들이 시간 시간 "초초로 바라보시라요, 초초로 주님을 바라보시라요" 안찰을 하시면서도 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단에 서시면 당신을 "바라보시라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사람 귀에는 바라보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는 것으로, 지상 명령으로 들려졌던 것입니다. 또한 바라보시라고 하면서 설교 가운데 "고도로 사모하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이사람 귀에는 사모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그대로 지옥에 가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여지없이 지옥 자식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메시아(מָשִׁיחַ, Messiah) 조희성님

그런고로 일초일초 바라보고 일초일초 고도로 사모하고 사모하면서 나가는고로 그 사모하는 층이 1단계에서 2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것은 항상 감사한 마음이, 감개무량한 마음이 용솟음치는고로 눈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층인 것입니다. 그 층에 들어가게 되면 옆에서 누가 "여보세요" 해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깊이깊이 그 마음의 초점이 고도로 하나님의 보좌에 꽂혀있는고로 그 마음을 그 누가 뺏어갈 자가 없는 단계인 것입니다.

온전히 맡긴 바 되고 주장함을 받은 자라야 고도로 사모하게 돼

진실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 하늘의 사람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라면, 하나님을 귀한 존재로 여기는 자라면 고도로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육적(肉的)으로 연애를 하는 사람도 서로 사모하거늘 하나님의 영을 받는 데는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고도로 사모하고 또 사모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영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도로 사모하는 자는 온전히 맡긴 바가 된고로 온전히 사로잡힌 자, 온전히 주장함을 받는 자가 된고로 고도로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고도로 사모한다는 말이 온전히 맡긴다는 말이 되는 것이요, 온전히 맡긴다는 말이 온전히 고도로 사모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에게 맡긴 바 된, 온전히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바가 된, 온전히 하나님에게 주장함을 받는 은혜자가 되어야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며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긴자 나의 구주삼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이 되지 않고는 구원과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지 않으면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길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 자격을 가져야 하늘나라에서 영원무궁토록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되지 않고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고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에는 품을 수 있는 조건이 못 되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 있는 이긴자를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바라보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바라보기만 하면 들어오는고로 하나님의 영이 다른 데는 없고 마지막 완성자 '이긴자'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기신 영을 받아야 나를 이기고 마귀를, 세상을, 우주를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기신 영을 받기 전에는 나를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우주를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우주, 온 세상의 마귀를 이겨야 영생이지 하나만 이겨서는 영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긴자는 우주의 마귀를 이긴 자요 전지전능자이신 것입니다. 그런고로 조금 은혜를 받고 흉내를 내는 자들이 있는고로 항상 티를 내지 않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사모하는 층이 1단계에도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아는 척하고 까부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층은 10단계가 아니요 무궁무진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마귀가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흉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앞선 이긴자, 완성자는 그 전에는 뛰었으나 이제는 날으는 것입니다. 걷는 자는 나는 자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초 동안에 수십억만 배, 무량대수 곱하기 무량대수 배로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는고로 마귀는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방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지만 이제는 이긴자의 영은 고도로 급속도로 날으는 영인고로 이제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칼을 뽑으면 끝장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사람 하나를 키우는 데 육천 년이 걸린 것입니다.

6면에 계속

《성탄절 2부 행사》 진행을 맡은 사회자 김원찬 승사

1. 영상물 『이젠 하나로』_ 부산제단 제작/ 김원찬, 편집협조/진해제단 이창선
2. 테마가 있는 노래 『황토강으로 & 힘내라 맑은 물』_ 기타, 노래/ 라준경
3. 중창 『귀중한 보배합을』_ 본부제단 여청회(신미영, 강향숙, 원현옥, 김선애, 변숙자), 클라리넷/ 이승우, 피아노/ 박인숙

4. 합창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_ 무궁화합창단, 지휘/ 박철수, 반주/ 박인숙
5. 관현악 『탄생 & 감사합니다(전성도 찬송)』_ 무궁화관현악단, 지휘/ 김성우, 협연/ 무궁화합창단